

한국문화기술 통권 제10호 2010.12, pp.127~139

| 특집논문 |

디아스포라를 시인으로 사는 것

—김시종의 최신시집 『잃어버린 계절—김시종 사시시집』을 읽다

호소미 카즈유키(오사카부립대 교수)

2010년 2월 김시종의 신시집 『잃어버린 계절』이 간행되었다. 단행시집 으로서는 『화석의 여름』을 출판한 이래, 11년 이상의 시간이 흘렀다. 그동안 김시종은 김석범과의 대담 「어째서 계속 써왔는가 어째서 침묵해왔는가」(2001년, 해본사)의 간행, 윤동주 『하늘과 바람과 시』(2004년, 모즈공방)의 번역, 강연·대담집 『우리 삶과 시』(2004년, 이와나미서점)의 간행, 재역 『조선시집』(2007년, 이와나미서점)의 출판 등 커다란 일을 정리해왔다. (이외에도, TV, 라디오 등 매스컴에의 출연과 취재도 했다) 그 모든 것이 김시종이 숙명적으로 직면해 온 생애의 테마와 깊이 관련되어있다.

십여 년 동안 김시종이 해온 일 가운데에서, 굳이 말하자면 우리들은 두 개의 테마를 식별할 수 있을 것이다. 즉, 4·3사건과 후쿠다사건 등, 해방

* 한국문화기술연구소 제10회 국제학술심포지엄(아시아의 문화과 문화콘텐츠 VI)에서 발표된 논문을 수정하여 게재한 것임.

2 한국문화기술 통권 제10호

후 조선과 전후 일본에서의 김시종이 깊이 관련되면서 공공연히 이야기할 수 없었던 정치적 사건의 증언이 하나의 테마이며 또 하나는 얼핏 보기에 이와는 정반대에 있는 듯한 시에 있어서 「서정」의 재(再)물음이라고 하는 테마이다. 전자의 테마의 계열은 김석범과의 대담, 강연·대담집 『나의 삶과 시』에서 생생하게 이야기되고 있으며 후자의 「서정」이라는 테마는 윤동주의 번역과 『재역 조선시집』에서 여실히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들은 중요한 두 개의 테마로서 김시종이라는 사람의 안에서 단순히 떨어져 존재해온 것은 아니다. 오히려 양자는 항상 얹혀서 존재해왔다. 4·3사건과 같은 너무나 무거운 정치적인 문제와 일견 극히 개인적인 표현의 문제라 여겨지는 「서정」의 재질문이 분리하기 어렵게 절실히 얹혀 있는 것, 바로 거기에 김시종의 시인으로서의 실질이 존재하고 있다. 김시종의 최신시집 『잃어버린 계절』은 바로 그것을 지금까지의 시집보다도 더욱 말을 어물거리는 듯한, 더듬거리는 언어구사 속에서, 우리들에게 그 전편을 들어 게시하고 있다.

김시종 스스로 “김시종 서정시집이라고 제목을 걸고 싶었다”고 하는 『잃어버린 계절』은 부제로 『김시종 사시시집』이라고 붙여있는 것처럼, 네개의 시간과 사계를 주제로 한 것이다. 실제로 여기서는 32편의 작품이 8편씩 각각의 계절별로 수록되어 있다. 또한, 김시종은 새로운 ‘노래’의 창출을 스스로의 과제로 삼아 왔다. 그렇다고는 해도 종래의 서정시가 읊어온 4개의 계절이 여기서 그대로 제재가 되어있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그러한 방식으로 사계를 다루는 종래의 감성에 저항하고 있다는 것이 여기서의 주안점이다. 원래 사계는 춘하추동이라고 불리는 것처럼, 일본이건, 유럽이건, 북반구에 있어서 봄부터 시작해 겨울로 맺어진다. 이에 대해 『잃어버린 계절』에서는 여름에서 봄에 이르는 형태로 시집이 짜여 있다. 사계를 봄부터 센다고 하는 통념적인 짜임새 그 자체가 여기서는 뒤집혀 있는 것이다.

그렇다 해도, 어째서 여름에 시작해 봄으로 끝나는가. 아니, 원래 김시종에게 있어서 ‘여름’이란 무엇인가, ‘봄’이란 무엇인가. 김시종 스스로가 명

확히 이렇게 주석을 달고 있다.

필자에게 4월은 4·3사건의 잔혹한 달이며, 8월은 반짝이는 해방(중전)의 백 일몽의 달이다.

- 김시중, 『잃어버린 계절』, 후지와라서점, 2010년, p.167.

김시중에게 여름이란 통상적으로 생각하는 ‘여름’이 아니라, 황국소년으로서 고향 제주도에서 일본의 ‘빼전’을 맞이해 동포로부터 뒤흔들면서 겨우 조선인으로서의 자각을 되찾은 저 ‘여름’임에 틀림없다. 그리고 한편으로, 봄도 초목이 싹트는 일반적인 ‘봄’이 아니라 4·3사건의 새까만 기억과 하나의 ‘봄’인 것이다. 김시중에게 있어서 1년이라는 달력이란, 그러한 ‘여름’에 시작해 ‘봄’에 끝나는 것이다. 그리고 그 ‘봄’은 또다시 그 ‘여름’에 이른다. 춘하추동이라고 하는 사계의 순환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사람들 속에서 김시중은 여름에서 봄에 이르는 계절의 순환을 살아온 것이며, 지금도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김시중은 그 고유의 기억 때문에 동시대의 한 가운데에서 이른바 다른 시간의 질서, 다른 달력을 살 수 밖에 없는 것이다.

디아스포라를 사는 자가 버리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은 고향과 언어만이 아니다. 특히 김시중과 같이 결정적인 체험을 통해 고향과 격리된 자는 통상의 시간질서 밖으로 끌어 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나 그에 의해, ‘자연’은 전혀 다른 모습으로 나타난다. 흐드러지게 피는 꽃들이나 냇물이 줄 줄 흐르는 소리를 통해 인간에게 위안을 주는 자연과는 대조적으로 『잃어버린 계절』에 등장하는 자연은 입을 굳게 다물고 있다. 그곳에서 새는 지저귀지 않고(「조어의 가을」)가을의 잎마저도 단풍 드는 일 없이 겨울의 가로에 흩어져 있다(「한 장의 잎」). 김시중의 시선은, 이미 「바이오연료」의 개발에까지 다다른 인간과 자연의 관계를 응시한다(「두 개의 옥수수」). 작품 「춘」의 “빙의 된 정숙에는 자연이라 해도 포로인 것이다”라고 하는 김시중 만의 1

4 한국문화기술 통권 제10호

행, 바로 김시중의 선율에 따른 새로운 ‘노래’라 해야 할 이 1행에는 이 시집의 과제가 훌륭하게 집약되어 있다.

종래의 서정을 구실삼아 ‘자연’에 미사여구를 더하는 것은, 이 ‘포로’로서의 자연을 더욱 감금상태로 몰아붙여, 그 입에서 완전히 언어를 빼앗는 것에 다름없다. 이 자연 스스로가 놓여진 「포로」라고 하는 존재방식으로부터 자연자체를 해방하는 것. 따라서 김시중은 단순히 자연의 침묵을 묘사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김시중의 시선을 바탕으로, 감나무 가지 끝의 감 하나가, 깨져 버려진 소라 껍질이, 거리에 떨어진 한 장의 잎이, 그리고 내리는 비까지도 말해야 할 것을 전신에 끌어안고, 울분을 풀 길 없는 마음으로 입을 닫고 있는, 저 제주도의 한라산과 같은 모습을 발하게 되는 것이다.

마음의 지평에서는

구화산 마저 뭉게뭉게 살아있다

분연을 뿜어 올려도 누구 하나 도망도 치지 않는다.

속속히 동굴로부터 마을사람들이 나타나

저것은 꿈이었다고

재앙을 태우는 산을 보고 있다

-「여행」 중에서

한라산이 숨기고 있는 용적과 중량과 에너지, 그 모두를 우리들의 주변의 작은 자연 아무렇지도 않게 존재하고 침묵하는 자연의 하나하나를 확인하는 것, 그것이 김시중의 『잃어버린 계절』에 있어서의 ‘서정’임에 틀림없다. 그리고 그러한 시선과 청각이야말로 해방 후의 한국전쟁 속에서 ‘소식 불명’이 된 김억, 강처중들의 문학 그대로 사라진 숨결, 그 고동에 귀를 기울이는 것을 가능케 하는 것이며(『잃어버린 계절』), 나아가서는 조용히 마을 공장의 한구석에서 살거나, 시설로 끌려가거나 하는, 울드커머나 뉴커머인 재일교포들에게로의 시선을 가능케 한다.

디아스포라를 시인으로 사는 것 5

종래의 서정, 통념으로서의 「서정」을 철저하게 뒤집는 이 시집은 그러나 의외로 말미에 서정시의 한편의 전형이기도 한 릴케를 인용해 끝맺고 있다. (인용은 「봄에 찾아오지 않게 된 것들」의 최종연, 주석도 원문)

그래도 화창하게 바람은 건너
 끊어져 가고 있는 무언가가 그래도
 봄이 구석의 저편에서 그림자지고 있다
 이렇게 우리들은
 매일 무엇인가를 잃어가고 있다
 결코 어렴풋하게 가 아니다
 저 멀리에 확실히
 끝나가는 것이 보인다
 뒤섞이고 떠올라
 꽃잎이 춤추고
 아아 이 바람과 함께
 우리들의 운명이 불어온다

* 이 2행은 릴케의 시 「춘풍」의 일절

릴케의 「춘풍」은 야오이서방의 『릴케전집』에서는 제2권에 「후기의 시」로 게재되어 있다. 별반 길지 않은 작품이므로 전행을 인용해두고 싶다.(인용은 역자 후지카와에이로, 강조는 원문)

이 바람과 함께 운명이 불어온다 아아 오도록 맡겨두는 게 좋다
 이들 모두 다가오는 것, 맹목적인 것
 그리고 우리들을 타오르게 하는 것을—
 (그것이 너를 찾아내도록 너는 가만히 움직이지 않는 게 좋다)

6 한국문화기술 통권 제10호

아아 우리들의 운명이 이 바람과 함께 불어온다

이름도 없는 풀들의 사물을 짊어지고 비틀거리면서

어디에선가 이 새로운 바람은 가져온다

바다를 넘어 우리들 본연의 모습을

.....만일 그것이 우리들의 모습이라면 그렇게 우리들은 자리잡겠지

(하늘이 우리들 속에서 떠올라서는 또 가리אות간다)

그래도 이 바람과 함께 또다시

운명은 우리들을 크게 넘어간다

김시종이 참조한 것이 이 시의 제 1연의 최종행인 것은 분명할 것이다. 그래도 『잃어버린 계절』의 권말에서 릴케가 참조되었다는 점은, 김시종에게 있어서 릴케의 서정시가 얼마나 친밀한 것이었는지를 우선 우리들에게 나타내고 있을 것이다. 그렇다고는 해도 이 릴케의 작품에는 역시 전통적인 겨울에서 봄으로의 흐름이 배경에 깔려있다고 생각된다. 그에 대해 김시종의 이 시집의 문맥에서는 원래의 시 제 2연의 의미에 새로운 빛이 비추고 있다는 점을 우리들은 깨달을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어디에선가 이 새로운 바람은 가져온다/바다를 넘어 우리들 본연의 모습을” 즉, 릴케에서는 미지의 봄(운명)을 초래하는 바람이 작가에게는 바로 ‘바다를 넘어’ 고향인 제주도로부터 불어오는 이른바 디아스포라의 바람이라고 달리 읽힌다고 해석할 수 있는 것이다. (앞에 인용한 ‘본연의 모습’이라고 번역되는 곳, 원문의 독일어에서는 ‘우리들이 있어야 할 모습으로 존재하는 것 was wir sind’이다.) 즉, 여기서는 릴케의 서정시도 또한 통상의 「서정」으로부터 김시종에게 고유의 문맥으로 환골탈태된 것이다.

디아스포라를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란 무엇보다도, 개개에 철저한 것이야말로 보편적으로 통한다고 하는 역설을 살아간다는 것과 다름없는 것이

디아스포라를 시인으로 사는 것 7

아닐까. 디아스포라의 바람을 맞으며, 일반적 달력의 질서와는 다른 여름
으로부터 봄에 이르는 사이클을 살고 있는 김시종의 현재는 김시종에게 고
유문맥에 철저한 것에 따라, 우리들이 글로벌리제이션이라고 하는 시대의
한가운데에서 직면하고 있는 사태를 또 하나의 「노래」로써 제시하고 있다
고 할 수 있다. 다음의 아무 것도 아닌 듯하지만, 그러나 중요한 일절로 내
소론의 결말을 짓고자 한다.

무사히 모두가 이어져
이어지는 누구도
거기에는 없다

-「이어지다」 말미

논문 접수일	2010. 11. 10.
논문 심사일	2010. 11. 25.
게재 확정일	2010. 12. 10.